

# 국내 독자와 직접 만나는 외국인 저자

## 베르나르 베르베르·토니 부잔 출판사 초청으로 내한 강연회 가져

출판계가 벌이는 행사들이 점차 국제화하고 있다. 최근들어 일부 출판사들이 국내에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외국 저자들을 초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28일 사흘간에 걸쳐 세계 절출판사(대표 김영중)는 한국부잔센터(대표 김재영)와 공동으로 두뇌개발이론 '마인드맵'을 창시한 토니 부잔과 '비즈니스 마인드맵'의 저자인 반다 노스를 초청했다. 마인드맵 이론은 국내 독자들 사이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업·언론사·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뒤이어 열린책들(대표 홍지웅)은 '개미'와 '타나토노트'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초청했다. 그는 11월 3일 방한해 일주일 가량 머물렀다. 소설 '개미'는 국내에서 70만부나 팔린 '밀리언셀러'. 출간된 지 두달 남짓한 '타나토노트'도 베스트셀러 대열에 성큼 들어서 있다.

이들은 국내에 머무는 동안 강연회 및 팬사인회를 갖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토니 부잔을 만났다.

### 「개미」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와 「타나토노트」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씨(33)는 '열린책들' 초청으로 방한, 일주일간 머물렀다. 그는 분주한 일정 탓에 피로한 기색이 선연했으나 시종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사진에서보다 부드럽고 친절한 인상이다.

전날 종로서적에서 가졌던 강연회와 독자와의 대화에서 독자들이 수백명이나 몰려드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자 깜짝 놀란 눈치다. 더구나 프랑스에서는 오랜 시일이 걸려 현재까지 60만부가 팔렸는데, 국내에서는 1년 3개월 만에 70만부의 판매부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개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미가 전세계 어느 곳이나 있는 흔한 곤충이기 때문이죠. 프랑스에서는 일선 교사들이 이 책을 교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문체나 문학적 구성, 그리고 3차원 세계를 다룬 수학적 요소들이 11세에서 17세 사이의 학생들에게 적당하다는 평입니다.”

「개미」는 작가가 12살 때부터 관찰해온 개미를 신성한 발상과 기상천외한 기지로써 소설 속으로 끌어들이는 작품. 완벽한 소설을 쓰겠다는 일념으로 120번이나 개작했다. 원고를

### 「열린책들」은 베르나르 베르베르,

### 세계절출판사는 「마인드맵」 이론의

### 창시자 토니 부잔을 각각 초청했다

### 국내에 많은 독자들을

### 확보하고 있는 이들 외국 저자들은

### 강연회 및 독자와의 만남 등

###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 출판계가 벌이는 행사들이

### 점차 국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 사례이다

들고 출판업자를 찾아나선지 6년째, 프랑스에서 다섯번째로 꼽히는 출판사 '알뱅 미셀'을 만났다. 「개미」는 그에게 화려한 성공을 안겨줬고, 순식간에 전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현재 이 소설은 세계 10여개국에 판권이 팔려 나간 상태.

「개미」와 「타나토노트」 덕분에 프랑스에선 현존하는 작가들 중에서 세번째로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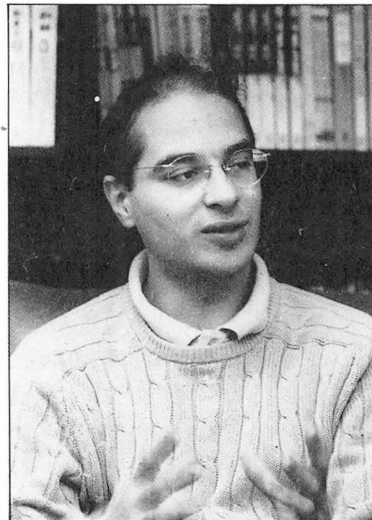
두달 전에 한국에 상륙한 그의 신작 「타나토노트」(이세욱 옮김)는 미카엘 팽송이라는 마취과 전문의가 프랑스의 가상 대통령 뤼생테르의 지원하에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을 상대로 저승여행 실험을 한다는 줄거리를 갖고 있다.

그는 11월 4일 종로서적에서 열린 「문학과 과학의 만남」이라는 강연회에서 “「개미」가 생물학과 생태학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해 준 것처럼, 「타나토노트」도 지식의 새로운 지평을 계속 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소설을 통해 과학과 문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도 설명했다.

베르베르씨는 현재 두 문명의 화합을 도모하는 내용의 「개미」 제3부를 집필중이다. 그는 독서를 그다지 많이 하는 편이 아니다. 과학부 기자였던 이력이 여러 과학자들을 알게 했다. 그들로부터 많은 지식을 전달받는다.

### 「마인드맵」 이론 창시자 토니 부잔

토니 부잔(52, 국제부잔센터 회장)이 방한한 목적은 두가지. 첫째는 「한국부잔센터」(대표 김재영)에서 펴낸 마인드맵 관련서들이 매우 독창적이라는 데 착안, 이 책들을 극동



사진은 「개미」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33, 왼쪽)와 「마인드맵」 이론의 창시자 토니 부잔(52)

지역의 마인드맵 기법 매뉴얼로 활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다. 둘째는 「비즈니스 마인드맵」(반다 노스 지음, 세계절)의 출판기념을 위한 강연회 때문이다.

지난 10월 27일 토니 부잔은 반다 노스와 함께 교보빌딩 대강당에서 마인드맵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사람들은 450여명이나 되었고 80%가 기업체 교육담당자들이었다. 부잔씨는 전반적으로 마인드맵의 실제와 활용법, 그 효과를 설명했다. 「마인드맵」 이론은 「읽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기억하는 모든 것을 마음 속에 지도를 그리듯 기록하는 두뇌개발이론.

부잔은 자신의 이론이 교육이나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배우는 방법임을 강조했다.

“경영이나 예술, 과학 등 전문적인 수준에 도달하기에 앞서 배우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트 필기법은 긴 문장을 그대로 받아 적는 대신 간단한 그림과 기호 등을 이용해 낙서하듯이 그립니다. 색깔이나 그림이 불러일으키는 연상작용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면 인간의 좌우뇌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해력과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가 마인드맵 이론을 개발한 것은 대학시절이다. 두뇌사용법에 관한 책이 필요함을 느꼈던 때이기도 하다. 이후로 심리학, 두뇌신경생리학, 논리학, 신경언어학, 기억술 등을 공부했다. 졸업 후에는 과학 신문기자를 거쳐 마인드맵에 관한 책을 펴내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자가 됐다. 하루 강연료가 4만 5천달러나 되는 특급

사회교육강사로 활동중이다.

한국부잔센터 관계자는 내년에도 다시 한번 토니 부잔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토니부잔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국내에 출간된 마인드맵 관련서는 총 7종. 세계절출판사에서 시리즈로 출간한 「반갑다, 마인드맵」 「중고생을 위한 마인드맵 수학」 「아이들을 위한 마인드맵」(한국부잔센터 엮음) 「비즈니스 마인드맵」(반다 노스 지음, 한국부잔센터 엮음)을 비롯해 평범사에서 출간한 「마인드맵 북」 「유주얼 메모리」 「유주얼 헤드」(라명화 옮김)가 있다.

### 외국작가들의 국내 입성 내년까지 계속돼

이번에 방한한 부잔과 베르베르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출판사들도 유명 해외작가들을 대거 초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발행하는 계간 「대화」(발행인 지명관)와 일본 잡지 「세계」의 공동 주관으로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오에 겐자부로가 내년 1월 8일경에 방한한다. 그의 작품은 「개인적 체험」(청담사) 「침묵의 외침」(국일문화사) 「절규」(신세계) 등이 이미 국내에 번역됐다. 현재 서울 시내 4개 대형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개인적 체험」이 순위 1위를 랭크하고 있다. 이밖에 도서출판 「큰뜻」에서는 「영웅문」 「천룡팔부」 등 무협소설로 잘 알려진 중국 작가 김용을 초청할 예정이고, 이미 베르베르를 초청해 그 저력을 과시한 「열린책들」은 「장미의 이름」 「푸코의 추」 등을 쓴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를 초청할 계획이다.

—배은희 기자